



영업생산부문 대표 문주호 부사장

늘 푸른 한솔!

제지업계 선도...벤치마킹 대상

1965년 설립, 2005년에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한솔제지는 국내 제지업계를 선도해 오고 있다. 회사의 모태가 된 전주공장을 기반으로 성장을 거듭하여 지금은 인쇄용지 중심의 장항공장, 산업용지를 생산하는 대전·청주공장, 특수지의 천안·상주공장 등 국내의 5개 공장과 중국시장을 타깃으로 설립한 홍콩의 SCP까지 총 6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국내 제일의 종합제지 회사이다.

1992년 제지업계 처음으로 통합 브랜드 HI-Q와 제품별 별도 포장지를 사용함으로써 업계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또한 공격적인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통해 수출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림으로써 제지산업이 내수 업종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 수출산업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이끄는 등 제지업계의 흐름을 주도해 오고 있다.

합리적인 구조조정 위기를 기회로

단군 이래 최대의 경제위기였던 IMF 환란사태는 한솔제지에게도 위기로 다가왔다. 한솔그룹의 지주회사로서 그룹 계열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곧바로 한솔제지의 재무제표에는 지분법 평가손이 쌓이기 시작했고 금융권의 자금회수로 생존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한솔제지는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살리기 위해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알짜 공장인 전주 신문용지 공장을 Stora Enso, Norske Skog와 공동 설립한 PAPCO에 매각하여 회사의 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였으며 그룹의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던 이동통신 회사인 한솔 M.COM을 KTF에 매각하

회사연혁

- 1965년 1월 새한제지공업주식회사 설립
- 1968년 8월 전주제지로 상호 변경
- 1987년 2월 국내 제지업계 최초로 제품생산 200만톤 달성
- 1992년 2월 장항공장 준공(인쇄용지)
- 1992년 10월 한솔제지로 상호 변경
- 1995년 10월 대전공장 준공(산업용지)
- 1994년 12월 연간 종이판매 100만톤 달성
- 1999년 7월 홍콩 SCP 인수
- 2000년 5월 경제정의기업상 수상
- 2000년 6월 능률협회 World Best Award 수상
- 2000년 9월 업계최초 환경리포트 발간
- 2003년 10월 한솔팩텍 특수지 사업 양수
- 2002년 10월 TPM대상 우수상(능률협회)

60개국 수출, 글로벌화 박차

고 부실계열사들을 과감히 정리함으로써 이익이 나는 회사를 집중 육성하였다.

경쟁력 확보 위한 경영혁신 운동

구조

조정을 통해 IMF 위기를 넘긴 한솔제지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혁신 운동을 추진하였다. JUMP 21, New Start 운동 등 기존의 혁신 운동을 통하여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혁신팀을 발족시킨 한솔제지는 외부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원가·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S-725 등 공장별 원가절감 운동을 추진하였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생산시스템인 TPS를 도입하여 원가절감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TPM을 도입하여 형식적인 혁신운동이 아닌 생산현장에서 자발적인 공정혁신이 이뤄지도록 했다.

공장의 현장위주로 실시한 혁신운동들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게 된 이후 한솔제지는 관리부문의 혁신에 눈을 돌려 2002년 ISP를 추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03년 이후 업무 프로세스 혁신운동인 PI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2년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PI활동은 지난 8월에 시작된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이란 결실을 얻게 되었다. 2년여에 걸쳐 100명의 직원과 100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자금을 투입한 대형 프로젝트인 ERP는 가장 합리적인 부문별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이를 전사적으로 통합하는 활동을 통해 부문별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품질혁신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

한솔

제지의 경영이념 중 한솔인의 정신에 '최고의 품질로써 고객을 지향한다'라는 항목이 있다.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한솔과 고객이 같이 성공하는 회사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시장의 흐름을 읽고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한솔의 능력은 업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2000년 한솔이 출시한 미량코팅지(뉴-플러스)는 백상지와 아트지로 구분되던 종이시장에서 신선한 충격을 주며 시장을 급속하게 확대했으며 이후 타 업체들도 한솔의 제품 개념을 받아들여 유사한 제품들을 생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해 출시된 이매진 지(紙)는 고급화되는 시장의 흐름을 읽고 탄생시킨 제품으로 수입에 의존하던 고급지 시장에서 연 100억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뒀으며 제지업계로는 최초로 신문사 선정 히트상품(한국일보, 국민일보)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한솔제지는 2004년에는 실크매트, 밀레니엄아트, 매직패브릭, 웰빙보드, 프리미엄SC 등 5종의 신제품을 출시하였다. 고급화되는 국내 제지시장의 경향을 반영하여 출시되는 이러한 제품들은 다시 한번 한솔의 제품력이 인정받는 계기가 되고 있다.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는 한솔

누구

보다 빨리, 많이, 넓게 한솔제지는 세계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주요시장인 미국(1개법인·2개지점)과 중국(1개사업부·5개지점)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한솔의 글로벌화는 이제



그 결실을 맺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물론 남미의 페루, 우루과이와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공화국까지 5대양 6대주에 걸친 전세계 60여개국에 한솔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2004년도 수출액은 매출액의 50%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의 양적 증대뿐만 아니라 질적성장도 거듭하여 미국 등 선진시장의 비중이 50%를 넘어 높은 수익성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산업용지는 100%, 인쇄용지는 80%를 자체브랜드로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국 현지에서도 한솔의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생산 가능한 제품 수량 이상으로 구매요청을 받고 있다.

한솔은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남미 지역의 수출비중을 늘림으로써 수출지역을 더욱 다변화할 예정이다.

사회사업에도 일익

한솔 제지는 자연, 문화, 인류의 만남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창조하는 한솔이라는 기업 이념을 바탕으로 업계최초 환경현장을 발표한 것을 비롯해 환경친화기업 지정, ISO 14000인증, 환경마크획득과 각종 환경상 수상 등 일련의 그린 경영활동을 전개해

왔다.

회사의 설립과 함께 전북 부안에서 리기다 소나무 74만본으로 조림사업을 시작, 현재 총 4500만 그루의 나무를 조성했으며 목재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호주와 뉴질랜드에 총 3만ha 규모의 조림사업을 완료하는 등 1993년부터는 해외조림사업도 추진했다. 또한 한솔은 에너지 절감 활동에 우수한 실적을 올려 왔으며 이 결과 1997년에는 에너지관리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또한 1999년과 2000년에도 에너지 절감 우수업체 지정됐으며 2001년에는 장항공장 에너지 관리 책임자가 대통령포장을 받는 등 그 노력을 인정받아 왔다. 아울러 전 사업장이 에너지 관리공단의 VA(에너지 자발적협약)에 가입하여 귀한 자원 및 에너지를 아끼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사원과 함께 하는 현장경영

한솔 제지는 회사의 경영현황을 사원들과 공유함으로써 공감을 얻어내고 모두 하나의 목표에 매진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경영현황설명회를 개최한다.

분기별로 회사의 경영실적과 주요현안 등을 정리하여

대표이사가 직접 공장의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잘한 점 / 반성할 점을 짚어보고 칭찬 및 반성을 함께 하여 직원들도 회사에 애착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목표가 자연스럽게 공유되고 따라서 현장에서 작업하는 직원들도 본인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인식하게 된다.

생산시설

장항공장 백상지와 아트지 등 고급 인쇄용지 중심, 연간 65만톤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춘 장항공장에서는 자동화된 대형설비, 쾌적한 생산환경으로 시설규모에서는 물론 품질에서도 국제수준을 선도해 갈 수 있는 우수한 종이를 생산하고 있다. 장항공장은 최첨단 설비의 초지기 3대와 코팅기 2대를 갖추고 있으며 대형 수퍼칼렌더, 슈트커터기 등의 설비를 갖추어 생산에서 완제품까지 자동화 공정으로 이루어진다.

대전공장 상품포장용 산업용지인 최고급 백판지를 중심으로 연간 46만톤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춘 대전공장은 생산설비 중 완성시설이 국내 백판지 제조사와 달리 오프-머신으로 되어 있으며 대형 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자동화창고 등 최첨단 설비를 갖추고 있다.

청주공장 상품포장용 산업용지인 백판지, 건축용 자재인 석고보드의 원지, 첨단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칩 운반용 캐리어 테이프를 중심으로 연간 7만톤의 생산능력을 갖춘 청주공장은 쾌적한 생산환경으로 신제품개발의 전진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천안/상주공장 국내 최대 특수지, 정보용지, 팬시지를 중심으로 연간 12만톤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춘 천안공장과 1800톤의 상주공장은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과 품질향상으로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맞는 특수지 및 정보용지 생산분야의 기술선도 공장으로서 발돋움하고 있다.

SCP : 중국시장 진출의 전진기지 SCP는 1999년 7월 홍콩 유일의 백판지 제조회사인 콩코디아사를 인수, 출범시킨 사업장으로서 홍콩이라는 지

기업이념 자연, 문화, 인류의 만남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창조하는 한솔

경영이념 한솔은 사람이다. 한솔은 기술이다. 한솔은 미래다.

한솔인의 정신 최고의 품질로써 고객을 지향한다. 새로운 도전으로 세계를 주도한다. 개성을 존중하며 전체를 생각한다.



한솔제지 사육 전경

리적 장점을 발판 삼아 중국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성장하고 있다.

안정성과 균형성 갖춘 탁월한 품질

한솔 제지는 국내 시장에서 사용되는 인쇄용지 전 제품을 모두 갖추었으며, 탁월한 품질의 안정성과 균형성을 제공하고 있다. 한솔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면성과 스티프니스를 들 수 있다. 인쇄를 할 때 잉크가 고르게 인쇄되어 양질의 인쇄물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면성과 작업성을 좋게 하는 스티프니스는 한솔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품 품질의 균일성 유지는 한솔제지의 기술력이 만드는 자랑거리이다.

〈조갑준 차장〉